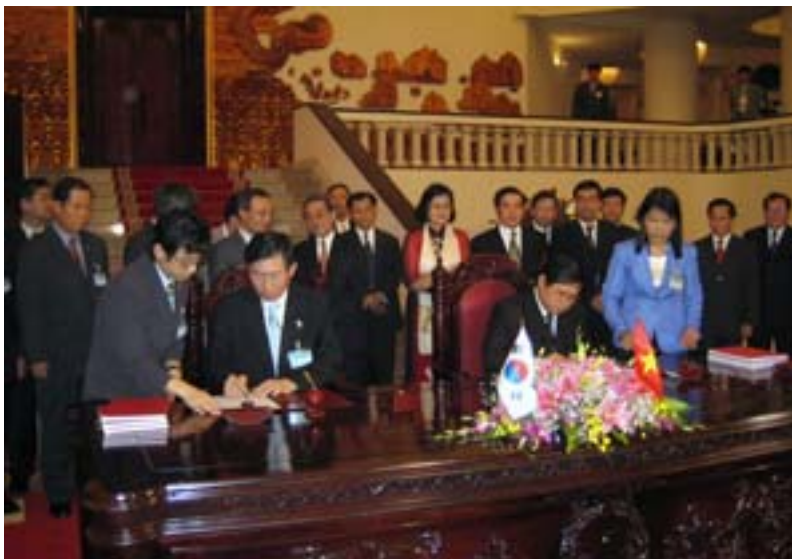


베트남 가스전 수익 4억달러 상회

2006년 11월부터 본격 생산 ... 한국-베트남 경제 · 산업 협력 강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베트남을 방문중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4월19일 Phan Van Khai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과 Tran Duc Luong 국가주석 예방 등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 ·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대폭 확대·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 총리는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자원 · 에너지 플랜트·건설, 산업기술, IT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해찬 총리는 11-2광구의 가스판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보증, 베트남 신규 입찰광구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및 제3국 공동자원개발, 한국기업의 신규 원전사업 참여,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등에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총리회담 직후 무상원조/기술협력협정, 11-2광구 가스 매매계약, 원자력발전 인력양성 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11-2광구는 국내기업이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가스전으로 2006년 11월

부터 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8억달러의 매출이 발생해 국내 지분 75%에 해당하는 약 4억2000만달러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 인력양성 MOU는 2005년 7월부터 연간 120여명의 베트남 원자력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장단기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MOU 체결로 현재 베트남 신규원전 사업(약 40억달러)을 놓고 일본 등과 치열한 진출 경쟁중인 국내기업의 수주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저널 2005/04/20>